

PEOPLE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여주시, 청산도서 워크숍 진행

여주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완도군 청산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비교 견학을 통한 섬 해설 기법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62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 해설사들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장과 구들장 논 등을 방문해 현지 문화관광 해설을 청취했으며, 완도군 관광 동향을 살펴며 여수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논의했다.

양산남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다른 지역의 해설 기법을 비교·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 전문적인 섬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교육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은 최근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남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8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문서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행기관들이 외부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평가 지원단장을 강사로 초청해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초부터 실무 응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경총, 조명진 박사 특강 진행 유럽 3대 이슈 등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제1681회 금요조찬 포럼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명진 박사를 초청해 ‘유럽 경제 심층 브리핑 (극우정당 득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식)’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조명진 박사는 유럽의 3대 이슈를 비롯해 유럽 극우 정당 득세 배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선 결과·분석, EU와 G7 리서치 제재 방식과 한계, 유럽 경제 분석에 대한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소개하며 포럼 참석자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피카소 붓처럼…생성형 AI는 창의력 동반자”

신민수 한국GPT협회 대표 강연
통계 분석 등 반복 업무 자동화
기술 받아들이는 태도 가장 중요

“AI는 인간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일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강화제입니다.”

신민수 한국GPT협회 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생성형 AI로 무장한 스마트 경영’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생성형 AI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 실무 적용 가능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AI는 피카소의 붓과 같다. 붓이 피카소를 대신하진 않지만, 예술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다”며 “AI도 인간의 창의력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I 기술이 더 이상 개발자나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하며 “수확 시기와 과일 사이즈의 상관관계가 0.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처럼 의미 있는 변수 간 관계를 AI가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선형 회귀 분석과 산점도 작성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엑셀 자동화 실습도 진행됐다.

신 대표는 교육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수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코드를 AI가 작성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신민수 한국GPT협회 대표가 10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생성형 AI로 무장한 스마트 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그는 “이처럼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야말로 AI 실무 도입의 첫걸음이다”며 “업무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만 해주면 AI가 알아서 필요한 코드를 짜준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I의 활용은 단순 코딩을 넘어 디자인, 설계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오토캐드 (AutoCAD)에서 사용하는 리스 (Lisp) 스크립트를 챗GPT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제는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AI와의 대화만으로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Firefly), 비지컴 등 디자인 도구들이 생성형 AI와 결합하고 있다”며 “AI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디자인의 흐름과 예술 감각까지 반영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I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AI가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더 크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우리의 일상을 더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업무 파트너다”며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경영 혁신의 열쇠이자, 삶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임직원 1억3000만원 기부 참여…취약계층에 나눔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받은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아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3월 한 달간 임직원 1억 3000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이 지역에 대한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난 10일 광주 남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영광군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과 재해복구를 위한 성금 2212만원을 기탁했다.

영광군, 산불피해 특별모금 2212만원 전달

“피해주민 일상 회복 응원”

영광군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과 재해복구를 위한 성금 2212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모금은 각계각층의 열띤 참여로 진행됐다. 모인 성금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으로 전달돼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지역의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공직자와 기관·사회단체,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 활동을 펼쳤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 ‘광주 방문의 해’ 성공 견인

5개 자치구·공공기관·호텔·PCO 등 협업 체계 구축

광주관광공사가 광주시, 5개 자치구, 유관기관, 숙박·요식 등 관광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개최를 위한 협업을 논의하는



광주 관광·MICE설명회를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시, 5개 자치구, 관광 관련 지역 공공기관 등 참여 기관별 주요관광사업 발표 및 협업논의, 여행에 미치다 조병관 대표 강연, 광주MICE 지원사업 설명회 순으로 진행되어 광주의 관광과 MICE 주요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실무자 간 협업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문제 해결형 회의로 진행됐다.

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산학 협의체인 광주관광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신규 관광사업 발굴, 유관기관 간 상호 협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공사는 올해부터 관광마이스 플랫폼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주관광거버넌스, MICE 얼라이언스 등 기존 협의체를 통합 운영하고 나아가 기업과 협업하는 등 협력 구조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